

1-26-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10-13

말씀 제목: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 가운데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요 17: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자신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누구도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요 1:1-2). 그분은 바로 알파이셨으며 시작이셨으며 처음이 되셨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창 1:1)고 증거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으로써 자신이 알파시며 시작과 처음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에 대하여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요 1:3)고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이 오메가요 끝이시며 나중이심에 대하여 약 육천 년이 지난 후 이루어질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29-30)

사도 요한은 창조 후 7천 년이 지났을 때 오메가요 끝이시며 나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하여 미리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같이 예비되었더라.”(계 21:1-2)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이며 지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됨으로써 새롭게 되는 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죄로 인해 심판 받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 가운데 심판받을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들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오메가요 끝이시며 나중 되시는 분이심을 이루시기 전에 죄악 세상을 죄인들과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 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 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벧후 3:3-14)

선지자 이사야도 세상 끝에 가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예언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주셨음이라.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찔으며, 기름짐과 어린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사 34:1-6)

하나님께서서는 세상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땅의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들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이천 년 동안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 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 년 같이 기다리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 된 자신의 자녀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살전 4:16-18, 고전 15:51-58)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주시고 지상에서 일한 만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을 통치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할 때 휴거의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했습니다(살전 4:18).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십사 장로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니라.’”(계 5:9-10) 아멘! 할렐루야!